

다윗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원칙과 생명의 공과와 거룩한 경고

성경: 삼상 16:1-삼하 24:25, 행 13:22, 36

I. 다윗의 역사에서(삼상 16:1-삼하 24:25)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윗이 십자가의 공과를 배운 것을 보아야 한다.

A.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과 골리앗을 이긴 일에서 시험받고 인정받았다 — 삼상 17:1-58.

1. 다윗은 목자로서 체험했던 것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다. 따라서 골리앗의 도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이 좋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 중에 어린양을 잡아가면, 뒤쫓아 가 때려눕히고 어린양을 그 입에서 구하곤 했습니다. 만일 그 맹수가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면 저는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신 여호와 그분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저를 건져 내실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 삼상 17:34-37.

2.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분께서 너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삼상 17:47)라고 말하였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고(40-48절), 돌 하나를 무릿대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 넣어 그를 죽였고 골리앗 자신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다(49-54절).

3.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었다. 다윗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의 모든 방면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마 10:29-31, 시 31:14-15상, 39:9, 롬 8:28-29, 사 45:15.

B.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당시의 왕인 사울의 시종드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두어짐으로써,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드러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 삼상 18:6-11상.

1.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시험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두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울이 다윗을 어디에 보내든지 다윗은 자신의 모든 임무를 지혜롭게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사울이 다윗을 세워 군사들을 지휘하게 하였다. 한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나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서 여자들이 맞으러 나와서 서로 이렇게 노래하였다. “사울은 수천을 쳐 죽였지만 / 다윗은 수만을 쳐 죽였다네.” — 삼상 18:5-7.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6 (계속)

2. 이러한 찬사가 다윗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사울에게는 영향을 주었다. 솔로몬은 “칭찬은 사람을 시험한다.”(잠 27:21)라고 말했다. 사울이 매우 화를 내면서 다윗을 시기한 것은, 그가 완전히 육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며, 전적으로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으며, 다윗은 숨을 곳이 없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자신의 명예에 손상을 주지 않은 채 그를 죽일지 음모를 꾸몄다 — 삼상 18:10-20:42.
3.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하였을 때 맞서 싸우지 않았으며 복수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몸을 피하였다. 복수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은 육체에 속한 일이다. 육체에 속한 일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 — 삼상 18:11, 비교 롬 12:19, 엡 4:26, 갈 5:21, 24.
4. 다윗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한 사람이었다. 사무엘기상에서 우리는 사울이 광야에서 다윗을 추적하여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을 본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질서를 감히 뒤집어엎으려고 하지 않았다 — 삼상 18:6-26:25.
5. 다윗이 사울을 반역하였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임명하신 왕을 반역한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윗의 태도는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였다.
6.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에 의해 거절당했지만, 이것은 사울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었다. 다윗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복종했으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책임이었다 — 삼상 24:4-6, 26:9, 11, 삼하 1:9-16.
7. 어떤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여 십자가 아래 삶으로써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자 하고, 자신의 타고난 생명과 기질을 알고 처리하며, 육체를 죽음에 넘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할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다.
8. 신약의 이해에 따르면, 다윗은 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졌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이다 — 비교 아 2:8-9, 14.
9. 다윗은 십자가의 공과를 배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요나단과 미갈을 누렸다. 그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이다 — 삼상 20:1-42, 19:11-18.

메시지 6 (계속)

10.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윗은 십자가의 공과를 배웠고, 결국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얻은 사람과 승리자,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 빌 1:19, 3:8-9, 고후 4:7, 16-18, 비교 2:12-14.
11. 다윗의 삶은 파쇄되는 삶이었다. 걸사람을 파쇄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 곧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는 것이다. 성령의 징계의 목표는 우리를 파쇄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속수무책인 상황에 두시는데, 이것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실 자유로운 길을 얻으시기 위해서이다 — 고후 1:8-9, 4:16-18, 12:9-10, 호 6:1-3, 롬 8:28-29, 비교 요 12:3.

II. 다윗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곧 하나님의 궤를 들일 처소에 관심을 기울였다 — 삼하 6:1-7:29, 시 132:1-18.

- A.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와 부지와 재료들을 준비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형을 다윗에게 계시하셨고, 다윗은 죽기 전에 이 모형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다. 따라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 그의 사역을 완수하고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 삼하 8:11, 왕상 7:51, 대상 22:14-16, 29:1-5, 28:11-19, 행 13:22, 36.
- B.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지만(삼하 7:1-3),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의도를 거절하셨다. 하나님은 신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물으셨다 — 삼하 7:5.
 1.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과 봉사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것이어야 함을 보여 준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일지라도 사람이 개시하거나 시작한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종교적인 활동이다.
 2.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 C.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협력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의 결심을 멈추게 하셨을 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의 갈망을 수행하려는 뜻을 멈춘 행동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바버(M. E. Barber) 자매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16장, 296 쪽)라고 말하였다 — 눅 10:38-42.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6 (계속)

- D. 다윗이 멈춘 것은 이 우주에서 다음과 같은 이중 증거를 세웠다. 첫째로, 이 우주에서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느냐이다 — 삼하 7:11-14상, 18, 25.
- E.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만 우리의 협력임을 깊은 속에서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의견과 결정과 구상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해야 한다 — 마 17:5.

III.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심으로 별주신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고전 10:11). 하나님은 자애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한 면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른 한 면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적인 의에 따라 다윗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셨다(삼하 12:10-14).

- A.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모두 굴복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높아졌을 때,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은 엄청난 죄, 곧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로운 상황에서 언제든지 방심하고 있을 때, 유혹을 받아 육체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삼하 11:1-27, 벰전 4:1과 각주 4.
- B. 다윗의 죄는 눈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에 빠진 결과였다(삼하 11:2-3). 다윗은 왕권이라는 자신의 권세를 남용하여(4-5절) 겁탈을 하면서까지 고의로 간음을 저질렀다.
- C. 다윗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일을 꾸며 자신의 악한 행위를 덮으려고 하였다(삼하 11:6-13). 결국 그는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요압과 공모하여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야를 살해하였다(삼하 11:14-25, 12:9).
- D. 다윗은 이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십계명의 후반부 다섯 계명을 범하였다(출 20:13-17).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 엄청난 모욕이었으며 그분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과거에 이룬 모든 업적이 거의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 E.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삼상 13:14) 하나님께 왕의 직분의 시대를 시작하실 길을 마련해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분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가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 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다(왕상 15:5).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느슨하였으며, 하나님을 영적으로 추구하면서 쌓은 최고의 업적을 허물어뜨렸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어야 한다.

사무엘기상·하

메시지 6 (계속)

- F. 다윗이 악한 자가 유혹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정욕을 철저히 통제하지 못하고 정욕에 빠져 추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극도로 상하게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G.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열두 지파 가운데 열한 지파를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입지와 위치도 잃었다(삼하 20:1-2). 다윗의 죄는 솔로몬의 부패를 낳는 씨가 되었으며(삼하 12:24), 솔로몬의 부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국은 분열되었다(왕상 11:9-13, 12:1-17). 또한 왕의 직분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후손 안에 뿌려진 이 부패의 씨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고 조상의 거룩한 땅을 잃어버렸으며, 거룩한 백성은 포로가 되었고, 온 땅에 이리저리 흩어져서 지금까지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
- H. 우리는 다윗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적인 손 아래 떨어지는 것이 엄중한 문제임을 볼 수 있다(삼하 12:10-14).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매우 빨리 회복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심지어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졌다(삼하 12:15하-20:26).
- I. 시편 51편에 계시되어 있듯이 다윗이 자신의 죄들을 자백함으로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회복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손 아래 두어졌다. 다윗의 실패 이후에 그의 집안에는 근친상간, 살인, 반역 등과 같은 많은 악한 일이 발생하였다 — 삼하 12:15하-20:26.
- J. 다윗의 죄가 몹시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무거운 벌을 내리셨다. 다윗의 집안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악한 일의 근원은 다윗이 육체의 정욕에 빠진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그분의 징벌과 통치적인 다루심이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 K.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엄중한 경종과 경고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하고자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에 참여하는 것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만일 우리가 이 항목들 중 어느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손실을 당할 것이다.
- L. 우리의 거처이시자,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이시자, 우리가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분 밖으로 토해 내시고 더 이상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 레 18:25, 계 3:16.
- M. 결국 다윗은 늙었을 뿐 아니라 쇠잔해졌다. 다윗의 일생은 밝은 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좋게 시작되었고, 그의 생애와 업적은 정오에 빛나는 해와 같았다. 그러나 그가 정욕에 빠진 것(삼하 11:1-27)은 그의 업적에 오점이 되었으며 그의 찬란했던 삶을 저녁에 지는 해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6 (계속)

처럼 쇠잔해지게 했다. 다윗의 말년에는 찬란하거나 뛰어나거나 훌륭한 것이 전혀 없었다 (왕상 1:1-4, 비교 신 34:7, 창 48:14-16, 잠 4:18).

N.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는 삶이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더 관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관대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인색하고 엄격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시고 엄격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병중에 있거나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때이지 그들을 비난할 때가 아니다 — 갈 6:7, 살전 5:14-15, 눅 6:36-38, 마 7:1-2.

1. 우리는 관대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엄격하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엄격하실 것이다. 우리는 가볍게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유죄판결 하거나 그들에 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부주의하게 평가하는 것이 자주 우리 자신에 대한 심판이 된다 — 마 6:15, 18:23-35.
2. 오늘날 많은 형제들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이 과거에 너무 심하게 다른 이들을 비난한 것이다. 오늘날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약점들이 과거에 그들이 비난했던 바로 그 약점들이다.
3.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항상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 그 복을 우리 자신도 상속받게 될 것이다 — 벧전 3:8-11, 마 10:13, 비교 민 6:22-27.